

# ‘중기→중견기업’ 스케일업... 전남 3개사 선정

## ECONOMY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 (주)한국메이드·(주)위코진광·케이비엔슈 등 100개사 중기부, 신사업 디렉팅...3년간 7억5000만원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사업·신시장 진출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선정한 ‘도약 프로그램’ 지원기업 100개사에 전남지역 3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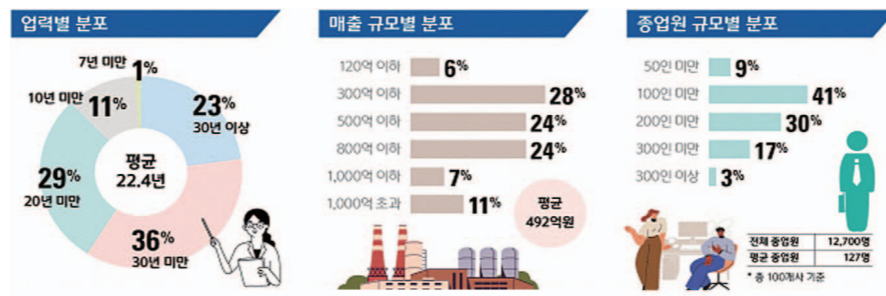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 최종 100개사를 선발했다.

이들 기업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과한 만큼 우수한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성 등을 두루 갖춘 유망한 중소기업이다.

전라·제주권에서는 모두 5개사가 선발됐는데 이 중 전남 기업은 (주)한국메이드(목포·대표이사 최종근), (주)위코진광(나주·대표 최승현), 케이비엔슈(나주·



대표이사 유병일) 3개사다.

(주)한국메이드는 목포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제작기업으로 선박 구성 부분 부품 제작부터 선박 수리, 건조 등 선박수리·개조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설립됐으며, 선비와 선수, 엔진 등 다양한 선박 부품 제조하며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을 획득, 선박 접안 시설을 갖춰 선박부품을 해상 운송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 및 정확한 납기준수로 우수협력사로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다. 또 친환경선박 시장 활성화를 예상, 보유한 친환경선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주에 위치한 (주)위코진광은 차단기류 등 다양한 선박 부품 제조하며 오렌지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을 획득, 선박 접안 시설을 갖춰 선박부품을 해상 운송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 및 정확한

실적 35만 달러에서 2023년 950만 달러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케이비엔슈는 자동차, 전기, 전자, 반도체 및 LCD 분야에서 사용되는 텅스텐, 몰리브덴 등 비철금속 제품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1년 서울에서 출발해 2016년 나주 혁신도시로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이전했다.

특히, 수입에 의존했던 진공증착 열원부품을 국산화에 유럽·미주·일본·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며 성장을 일궈가고 있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에 대해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과감히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전문경영인(한국경제인협회)과 글로벌컨설파사(BCG, KPMG, EY), 연

구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을 원팀으로 구성해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에 필요한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디렉팅을 운영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2억5000만원, 최대 3년간 7억5000만원의 오픈바우처를 선발기업에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와 함께 최적의 바이어와 글로벌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융자·보충, R&D, 정책펀드, 수출금융,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선발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현대삼호, 3년 연속 영업흑자 달성

### 작년 7236억...매출 7조 31억 역대 최대치

HD현대삼호가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현대삼호는 최근 호철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김재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주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4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에 승인된 재무제표를 보면 현대삼호는 지난해 매출 7조 31억원과 영업이익 7236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영업이익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대삼호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 주당 8934원의 현금배당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표이사로 부임한 김재을 사장을 선임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임기가 종료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인 신호영씨를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김재을 현대삼호 사장은 “확고한 경쟁력과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024 KBO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 타이거즈와 특별한 협업을 통해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출시했다. 설진규 KIA 타이거즈 상무(왼쪽 세번째부터), 심재학 KIA 타이거즈 단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기아 챔피언스카드 업무 제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은행, KIA V13 응원 ‘기아 챔피언스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4 KBO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 타이거즈와 특별한 협업을 통해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아 챔피언스카드’는 올해 KIA 타이거즈의 13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출시한 카드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홈경기 예매 시 입장료 2500원 즉시 할인(온라인 및 현장 매표), 추가 2500원 캐시백으로 현금돼 최대 5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월 실적 조건 없이, 1일 1회 이용 가능하다.

또 KIA 타이거즈 팀스토어(온라인 및 경기장)와 경기장 내 편의점, F&B매장에서 10%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야구장 뿐만 아니라 주유소(리터당 100원), 영화관(월 최대 3000원), 카페(월 최대 4000원), 철도(KTX·SRT, 월 최대 1만원) 등 다양한 캐시백 혜택과 함께 중흥골프드레스&리조트 워터파크 입장권 할인(본인 35%, 동반 3인 20%), 스포츠 호텔(본인 35%, 동반 3인 20%), 보성다치콘도 해수온천 입장권 30% 할인(동반 1인), 패밀리 레스토랑 2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현아 기자 aura@



농협 전남본부부는 최근 윤남농협에서 이석재 조합장 및 관계 조합장과 함께 전남 농촌지역 농업인 자녀를 위한 ‘농촌 희망 장학금’ 1억9800만원을 전달했다.

## 농협 전남본부, ‘농촌 희망 장학금’ 지원

총 396명에 1억9800만원 전달

농협 전남본부부는 최근 윤남농협에서 이석재 조합장 및 관계 조합장과 함께 전남 농촌지역 농업인 자녀 396명에게 ‘농촌 희망 장학금’ 1억98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농촌 희망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에 재학생인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396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원한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촌 희망 장학금이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재단과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성실신고 협조를”

### 세무사회와 관리 방향 등 협의 세정지원 방안·애로사항 청취

광주국세청은 지난 21일 광주세무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성실신고 지원, 현장 애로사항,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세무사회는 세정 협조자로서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증정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에게 전달하고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광주국세청은 지난 21일 광주세무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었다.

적극 협조해 달라고 세무사회 측에 요청했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과 신고도움자료 사전안내 현황, 세정지원 방안, 공익법인 신고방법 등을 설명하고 세무사회 측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광중 광주국세청장은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소통·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광주세무사회에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광주지방국세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광주-인천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출범’

### 산단공 기술세미나·AI기업 등 기술 교류·혁신성장 도모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부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인천 광역형 산학연협의체인 ‘첨단기술 산학연협의체’의 출범을 알리는 창립총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인천 광역형 산학연협의체는 광주의 스마트 가전, 전기·전자, AI 기업과 인천의 ICT 기업의 기술 교류를 통한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됐다.

창립총회는 주관인 광주 기업소계 및 연계지역인 인천 기업들의 소개를 시작으로

로 광역형 산학연협의체 정관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 승인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양 지역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광역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했다.

기술세미나는 ‘AI 에이전트 구현’을 주제로 AI산업의 최신동향과 기업에 적합한 AI기술 활용 전략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 산업계의 최신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양 지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마트 가

전, ICT, AI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신산업 발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다양한 협의체 활동을 통해 산학연 협력 모델을 마련해 지역 산업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영기 산단공 광주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첨단기술 산학연 협의체 출범을 통해 양 지역의 산학연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17 18 23 25 38 39**

**로또 1등 13명...당첨금 각 21억9000만원**

제116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7, 18, 23, 25,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930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76명으로 각 625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470명으로 13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4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80만7095명이다.

연합뉴스

## 광양경제청·더원플러스 협약 ESS 컨테이너 생산시설 구축

울촌산단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컨테이너 생산기지가 들어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주)더원플러스, 전남도, 광양시, 여수시와 울촌 1산단에 ESS컨테이너 및 특수목적 컨테이너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더원플러스는 2026년까지 112억원을 투입해 방수·방진 기능을 갖춘 ESS 전용 컨테이너, 국제표준화기구(ISO) 탱크 등 특수목적용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자동화된 생산설비로 국내 대기업의 ESS전용 컨테이너를 주문 제작하고 철관과 파이프 등 원자재 가공부터 조립, 도장, 건조, 성능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구충교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투자는 울촌1산단을 ESS산업의 대표적인 생산기지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원플러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jjin@